



북전주농협 · 농협 전주시지부, '추석 행복나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협이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 농업인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북전주농협과 농협전주시지부는 지난 15일, 농업인행복복센터 돌봄대상자 가운데 고령 및 독거 농가를 직접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북전주농협 여성단체 회원과 임직원으로 꾸려진 NH농촌현장봉사단이 함께 참여했다. 봉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대상자를 초대해 인부를 살피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전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축협, 전화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남원축협은 16일, 축산농가(조합원)와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전화금융사기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다양해진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피해사례, 대응 요령 등을 소개하며 금융사기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석 조합장은 “금융사기 방법과 수단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법을 공유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남원축협에서는 수시로 교육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광양시 다압면에 수해지원금 전달

남원시 죽향동은 통장협의회와 자매결연 도시인 광양시 다압면의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수해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광양시 다압면은 지난 8월 6일 정부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비 지원을 통한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나섰다. 이에 죽향동 통장협의회는 자매도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하여, 광양시 다압면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였으며, 전달식에는 임점숙 죽향동장과 장문영 통장협의회장이 참석하여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노인회 남원시지회 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성료

남원시는 16일, 제2회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그린파크 골프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지회장 박철곤) 회원과 파크골프협회 추천 어르신 등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130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참가자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며 건강한 경쟁을 펼쳤다. 개회식에는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과 고명철 파크골프 남원시협회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 남녀 각 6명씩 총 12명의 입상자 선정, 1위부터 6위까지 입상자에게는 남원시상품권이 전달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JB희망의 학습멘토링’ 제3기 멘토 발대식

전북은행, 자립준비청년 30명 아동 멘토로 활동... 1인당 8백만원 시드머니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역 아동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은행은 16일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2025 'JB희망의 학습멘토링' 제3기 멘토 발대식을 열고 자립준비청년 30명을 아동 멘토로 임명했다. 이번 사업은 학습 돌봄 공백 아동들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와 정서지원을 제공하고,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 중 보호시설 퇴소 5년 미만 자립준비청년 30명을 멘토로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8개월간 1:1 학습멘토링을 통해 멘티 아동의 학습 공백을 줄이고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전북은행은 멘토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지난해보다 3백만원 증액된 1인당 약 8백만원의 시드머니를 지급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김경환 관장,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 멘토 청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훈 부행장은 “아동 학습 돌봄 공백 해소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적 선순환 구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행 박성훈 부행장, 멘토 청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훈 부행장은 “아동 학습 돌봄 공백 해소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적 선순환 구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정읍시, 추석맞이 기탁 잇따라... 나눔 문화 확산

정읍시에서 추석을 앞두고 기업·교회·단체의 따뜻한 기탁이 이어지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지난 15일 한솔축산, 정읍성결교회, 정읍라이온스클럽이 잇따라 나눔에 동참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한솔축산은 이날 계란 3000판(216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매년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한솔축산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명절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한솔축산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런 나눔이 귀감이 되어 정읍이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계란은 공유냉장고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성결교회(담임목사 박병대)는 같은 날 라면 100박스(24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매년 명절에 라면을 꾸준히 기탁해왔다. 교회 관계자는 “민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했다. 이학수 시장은 “꾸준히 나눔을 이어온 성결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물품은 소외된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라이온스클럽은 이날 현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며 “많은 분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군청 사격팀, 제34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금빛 총성

황성은 · 이시윤 · 백정현 선수 활약, 금메달2 · 은메달1 · 동메달1 획득 쾌거

임실군청 사격팀이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34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명실상부 전국 정상급 팀임을 입증했다. 특히, 25m 권총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황성은 이시윤, 백정현 선수로 구성된 임실군청팀은 총점 1,744점으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금빛 성적을 거뒀다. 또한, 공기권총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도 세 선수는 1,709점을 기록해 동메달을 추가하며, 두 종목에서 모두 시상대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개인전에서도 눈부신 활약이 이어졌다. 공기권총 개인전



에서는 이시윤 선수가 금메달, 25m 권총 개인전에서는 황성은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며 단체전뿐 아니라 개인 기량에서도 최정상급 기량을 과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비전대, 유학생 안전관리 특별 캠페인

전주비전대학교 국제교류원은 2학기 개강과 함께 유학생들의 안전한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특별 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전기키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 유학생이 늘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면허 취득과 헬멧 착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헬멧이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에게는 대학이 직접 구입한 헬멧을 풀업 시까지 대여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병훈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함께 했다. 학생 대표로는 한국어토픽반 5급 과정 연수생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미얀마 출신 자우다팅 연수생은 “우리의 안전을 부모님처럼 챙겨주는 전주비전대학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동물보건학과, 응급대응 심폐소생술 교육

전주대학교 동물보건학과는 지난 12~13일 이틀간 응급대응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심폐소생협회 유승희 강사 익산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 백광일 팀장 전주대 동물보건학과 이유진 교수 등의 지도로 진행. 동물과 사람의 매케징 모형을 활용한 △기도 확보 △흉부 압박 △인공호흡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심폐소생술 과정을 반복 실습하며 응급처치 능력을 높였다. 반려동물산업학부 이승욱 학부장은 “반려동물과 사람에 있어 응급대응은 이들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밝혔다. 익산소방서 팔봉 119안전센터 백광일 팀장은 재능기부로 참여해 “보호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혔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주대 태권도학과, 반딧불축제서 태권도 상설공연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 ‘싸울아비’가 지역특화 태권도 상설공연「헌터스(Hunters)」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전주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전북 RSD(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헌터스(Hunters)’는 공연태권도의 겨루기·격파·폼새 등 전통 무예 요소를 LED 스크린과 특수조명 등 현대적 무대예술과 결합한 역사 판타지형 공연으로, 무주 덕유산의 웅장한 풍광, 반딧불이의 빛, 호국무사의 기개를 무대 연출에 담아내어 지역의 정체성을 태권도를 통해 표현했다. 이번 공연은 총 2회차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무주 한푸루 일대에서 시범공연을 펼쳤다. 싸울아비 단원들이 선보인 고난도 격파, 폼새,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정은성 기자



푸른물결, 덕진구 사랑의올타리봉사단에 100만원 기탁

푸른물결(회장 조수아)은 16일 추석 맞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명절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덕진구 사랑의 올타리 자원봉사단(회장 유찬에게)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취약계층의 추석맞이 명절 음식 나눔 행사에 쓰일 예정이며, 덕진구 관내 독거노인, 거동불편세대 등 어려운 이웃 160여 세대에 지원이 된다. 조수아 푸른물결 회장은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나누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 동충동 지사협, 하반기 특화사업 추진 방향 논의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6일, 올해 상반기 특화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하반기 및 내년도 특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상반기에 △취약계층 밀집한 지원사업 △관내 고립 가구와 함께한 ‘국수는 마음 돌봄’을 실행한 행사 △장수사진 촬영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국수는 마음 돌봄을 실행하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고립 가구와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소속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에 주민들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이웃과 연결되는 다리가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교육지원청, 2025 김제진로 · 진학페스타' 개최

김제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진로·진학 설계를 돕기 위해 2025 김제진로 · 진학페스타'를 16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김제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교육기부 인증체험처 및 김제시청, 국립청소나비바이오생명센터와 연계한 진로체험Zone(11개), △미래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미래과학·기술체험Zone(12개), △김제 관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를 통해 고교 선택을 돕는 미리 보는 고등학교Zone(9개), △도내 7개 대학 15개 학과 전공자들과의 만남으로 대학 진학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미리 가는 대학교Zone(17개)을 비롯하여, △전문 교사와 진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진로상담의 장으로 운영했다. 김제창의예술마당관 다음 동아리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연 이 행사는 1,300여 명의 참여 학생들이 빛나는 꿈을 위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은 진로 탐색 뿐만 아니라 고입,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김제=곽도태 기자